



[뉴스] 손정의 회장 재계 빅3 총수 만난다 02



Economy

코스피	2096.02 (-26.00)	코스닥	693.04 (-3.21)
금리 (연이자율)	1.43 (-0.03)	환율 (원/달러)	1171.30 (+5.30) (3일)

日 수출규제 다음 타깃은 '이미지 센서'

포토 레지스트, EUV 공정 사용 삼성, 파운드리 사업 차질 불가피 '반도체 비전 2030' 악영향 우려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 레지스트는 극자외선(EUV)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재다. EUV는 초미세 반도체에 필수적인 공정이다.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TSMC만이 도입에 성공했다.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은 EUV 비중이 낮은 만큼 큰 피해가 없겠지만, AMD를 비롯해 주요 수요처에서 본격적으로 주문을 확대하는 상황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 박유악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비메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으로 만든다. 삼성전자는 10대 기량 보유 중으로 알려졌다. /ASML

모리 반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며, 고객 확대를 목전에 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 영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수혜 기업은 당연히 대만의 TSMC다. TSMC는 파운드리 부문 독보적인 기업이었지만, 삼성전자에 빠르게 추격당하면서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태다. TSMC는 최근 일본에서 10년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팹리스 업체에 대한 구매 작전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TSMC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에 이뤄졌다.

다음 타깃은 이미지 센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미지 센서는 빛을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반도체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14조원대로, 스마트폰 멀티카메라와 자율주행차 확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삼성전자는 올 초 센서사업팀을 새로 출범하고 이미지 센서를 주요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를 겨냥했다는 추측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미지 센서 시장 1위가 바로 일본 소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점유율이 49%나 뺏겼지만, 0.7μm (마이크로미터) 벽에 막혀 삼성전자와의 기술 우위를 뺏기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김재용 기자 juk@

#지난 4월, 세계적인 브랜드 '버거킹'이 고기 없는 와퍼(햄버거)를 출시했다. 기존과 다를 바 없는 패티가 들어있지만, 실제 육류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임파서블 와퍼'다. 버거킹은 이 햄버거를 출시하며 "아무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Nobody can tell the difference)"이라고 공언했다.



버거킹이 출시한 식물성 패티 '임파서블 와퍼'(왼쪽)와 비욘드미트 소시지.

육류 빠진 패티, 닭고기 빠진 너겟 식탁위의 혁명 대체육이 뜬다

푸드테크 시리즈

(1) 사라지는 진짜고기

콩 등 식물성원료로 식감제한 환경오염·윤리문제 해결 인식 글로벌 대체육시장 2년새 5배 룩데리아 등 국내서도 개발시작

'가짜 고기'가 뜨고 있다. 콩이나 버섯 등의 식물성 원료로 소고기와 흡사한 맛과 식감을 재현한 '대체육'이다. 기존에는 채식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동물 보호 등의 윤리적인 문제로 진짜 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대체육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가짜고기 시장, 5배 늘어났다

2일(현지시간) 나스닥시장에서 '비욘드 미트(Beyond Meat)'는 149.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2일 첫 거래를 시작한 비욘드미트는 상장 두달 만에 공모가(25달러)의 5배 가까이 주가를 불리며 기업가치는 90억달러를 넘겼다. 원화로 10조5000억원 수준이다. 비욘드미트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 비건 버거 신드롬을 일으킨 대표적인 대체육 브랜드다. 병아리콩을 주원료로 하는 패티가 대표 상품이며, 육즙과 식감이 일반 고기와 비슷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버거킹에 대체육 패티를 공급하는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역시 콩을 주 원료로 하는 다짐육 업체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빌게이츠, 구글 벤처, 세레나 윌리엄스 등의 투자를 받으며 비욘드미트의 경쟁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채식 기반 식품 협회(PBFA)가

닐슨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 매출은 지난 2018년 6억7000만 달러로 1년 사이 24%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는 대체육 시장이 30억달러(약 3조5565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2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건강에 좋은 식물성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비만율도 큰 원인이다. 특히, 도축되는 소와 돼지의 사육 환경과 섭취 사료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동물에 주사되는 각종 호르몬제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했다.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조류독감(AI),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광우병 등에서도 자유롭다.

코트라 김동그라미 뉴욕무역관은 미국 대체육 열풍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가축사육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으며, 가축사육이 줄어들 경우 농경지 확대, 토양 침식 감소, 수질오염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가축 사육과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윤리 문제를 대체육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종 대체육도 출시 경쟁

국내에서도 대체육 열풍이 심상치 않다.

룩데리아는 지난 달, 처음으로 '고기없는 햄버거'를 국내 출시했다. 식물성 패티로 소고기 풍미를 구현한 '리아 미라클 버거'다. 룩데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룩데중앙연구소와 개발 진행해 왔으며 100% 식물성 패티의 독자적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환상적인 2019년 개기일식

2일(현지시간) 칠레 라 이게라에 사람들이 모여 개기일식을 관측하고 있다. 2일 낮 달이 태양 빛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펼쳐져 수많은 관광객과 과학자가 이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번 개기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으며 남태평양과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했다. 오른쪽은 한국천문연구원 관측한 개기일식. /뉴스

2일(현지시간) 칠레 라 이게라에 사람들이 모여 개기일식을 관측하고 있다. 2일 낮 달이 태양 빛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펼쳐져 수많은 관광객과 과학자가 이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번 개기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으며 남태평양과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했다. 오른쪽은 한국천문연구원 관측한 개기일식. /뉴스

"경제 살리자"... 대기업 세액공제로 투자유도

당정청,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3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 집중 투자를 실시하고, 기업의 부진한 투자를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특단의 세계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 등으로 "반도체 소재 등 개발 투자 관련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나섰다"고 말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전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 확대에 대응한 경제협력 보장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반도체 산업 강화 계획과 함께 당정청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내용도 발표

〈관련기사 3면〉

발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올 하반기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통과 노력 ▲경제 활력 강화 정책 추진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세계 인센티브 3종 세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선제 투자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마련 ▲미래도전 요인 대응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먼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내 70% 이상 신속 집행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도 확대하고 세계 인센티브(혜택) 등 가용한 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열수 송관·LPG-위험물 등 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당정청은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속상각이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풀 계획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